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趙完奎 박사

## 50년 한국과학기술사의 새 장 권위와 위상정립에 최선



대담 / 朴澤奎

(건국대 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일시 : 1995. 5. 6

장소 : 과총 회의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는  
선구자역할을 하겠습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22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조완규박사와 특별대담을 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22일 국내외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후 금년 3월31일에 19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우선 설립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년 준비작업 끝에 탄생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한림원 설립 준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

에서 많은 분들이 한림원의 설립 필요성을 깨닫고 아마 4년 정도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은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선진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과학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해오면서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은 1660년에 왕립학술원(The Royal Society), 프랑스는 1666년에 설립된 과학아카데미(Academies des Sciences)를 중심으로 문학, 예술, 정치 및 윤리분야의 학술원이 구성돼 있으며 스웨덴의 한림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벨상을 제정, 시상해 오고 있지요.

특히 미국은 1863년에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를 설립해 과학기술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연구결과와 평가 및 1천여종의 간행물을 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문학회와 있고 학술원이 있으나 학술원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학문에 헌신하신 원로들을 예우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

전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느 분야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림원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림원은 회원 각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민간단체이고, 각 분야를 망라하였으므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분야의

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융통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자 개개인이 모인 단체가 없는 현실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두뇌들이 결집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면에서 한림원 창립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뜻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50년 한국과학기술사에서 새 장을 열었다고 자부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The Kore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우리나라 과학진흥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개부와 12개 분과위 구성

한림원은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통한 심도있는 정책자문과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결집하여 전문학술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 세계화에 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 석학들이 모인 한림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이 옹게 입안,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조완규박사(右)가 박택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여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는 선구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림원은 산하에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정책 등 5개 연구부를 두어 관련분야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3년 임기의 원장, 부원장 외에 총회, 운영위원회와 앞에서 말한 전문분야별 5개부 및 12개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한 정부의 정책 건의 및 대안 제시, 둘째 과학자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 셋째 과학기술인이 우대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넷째 과학기술계의 개혁주도, 다섯째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을 들 수 있어요. 특히 과학기술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스웨덴의 한림원과 영국의 왕립학술원,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 등에 알리고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림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겠습니다.

■한림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명실공히 과학기술계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려면 구성원들의 권위와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종신회원 선별위원회 구성

한림원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권위와 위상정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직결되는 것으로 회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회원심사의 절차, 공정성 확보, 추천제도의 합리성 등이 확보돼야 하지요. 당연히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되어야 하고 회원이 될 수 없는 분은 회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정회원은 5백8명인데 임기가 5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종신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림원 설립정신에 알맞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그리고 어느분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종신회원 선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원로회원은 물론 종신회원도 당연히 될 분이 되었다고, 말하자면 “그 분야에서는 그 분”이라는 정설이 통하도록 초대 원장으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펼쳐나가겠습니다.

40~50대의 중진 과학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명에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나 정책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들

이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만 찾다보면 노화되기 쉽기 때문에 노장과 소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림원이 활성화되는 관건은 구성원의 구심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 취임사에서 밝히셨고 총회에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셨습니다만 우선 한림원을 법정기관으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 9월께 창립기념 심포지엄

고마운 것은 정부의 한림원 육성의 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김시중 전 과기처장관과 현 정근모 과기처장관이 한림원설립을 역사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현재 돕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낙정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한림원 창립에 산파역을 맡아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한림원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그 역할이나 기능, 사업방향이 다르게 될 수는 없어요.

미국의 경우 정부가 국립과학아카데미(NAS)나 국립공학아카데미(NAE)에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아카데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평생 학자로서 권력과 금력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림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거나 지탄을 받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 원장의 책무를 여러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 지성인, 최고 권위자가 모인 단체이므로 여기에서 수립된 정책 이상으로 강력하고 권위있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서 훌륭한 안을 제시해야지요.

한림원이 선의의 압력단체로서 과학기술정책이 옳게 입안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림원의 의견을 정부가 존중함으로써 국민들도 권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겠습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여 한림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의 통일시책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금년 9월중에 새로 준공하는 과총의 과학기술회관에서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 해외 석학도 회원으로 초빙

국내외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한림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좌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림원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석학들을 한림원 회원으로 초빙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 한림원 회원 3명이 수락의사를 표명했어요. 여기에는 영국 Royal Society의 Sir Michael Atiyah원장도 있어요. 그 밖에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Bruce M. Alberts 위원장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 한림원의 숭고한 설립목적을 구현시키는데는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한림원이 법정기관으로 정립되면 재정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정기적인 회비라고 해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 또한 원장이 깊어져야 할 큰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계에서 기대 이상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이 과학기술회관의 한림원사무실용 임대료 전액(3억원)을 선뜻 지원해 주었습니다. 4백여 회원들이 총회석상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했지요. 이것을 비롯하여 현재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 한림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큰 포부를 달성하시어 한국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 한림원 임원 명단

- 초대 원장 : 趙完圭(서울대 명예교수)
- 부원장 : 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 金基衡(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 · 李鎬汪(아산생명과학연구소장) · 趙鏞涉(서울대 교수)
- 사무총장 : 蔡永福(대한화학회장)
- 부장 : 정책연구부 = 李賢九(서울대 공대교수) · 이학부 = 李忠熙(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 공학부 = 金昊起(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농수산학부 = 夫庚生(서울대 농생대교수) · 의약학부 = 池堤根(서울대 의대교수)
- 감사 : 朴圭泰(연세대 공대교수) · 趙成浩(고려대 이과대교수)